



‘비상하라 천년전복 하나되라 대한민국’ 슬로건으로 지난 25일 개막한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4일간의 열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대한민국 스포츠 미래를 짊어질 꿈나무들의 경연인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7000여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하여 36개종목에 49개 경기장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또한 소년체전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5월 마지막 주말을 포함하여 개최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전북 익산에서는 주말을 비롯한 대회기간중 선수의 학부모, 연구 학교 등에서 5만 여명이 전북을 방문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개최되었던 전국체전보다도 많은 방문객과 지역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느껴졌다.

## 안전체전 · 관광체전으로 거듭



▲전복, 메달 목표 초과달성으로 전북체육 미래 희망의 불 밝혀

이번 대회에서 전북은 선수와 임원 1172명이 출전 총 87개(금 32, 은 25, 동 30)의 메달을 획득했으며, 전년보다 많은 메달을 획득해 쾌거를 이뤘다.

전북체육회 소속 역도의 유동현(순창북중)과 권민구(용소중)는 3관왕에 올랐으며, 육상 정연현(신태인초), 수영 이서아(서일초), 역도 김건우(전북체중), 사격 김강현(기린중), 근대3종의 김예나(전북체중)가 대회 2관왕에 오르는 기량을 펼쳤다.

단체종목에서는 정구(남초, 전북선발), 핸드볼(남초, 송학초), 양궁(남초부, 전북선발), 사격(남중부, 전북선발), 배드민턴(남중부, 전북선발), 바둑(남초부, 전북선발) 등이 금메달을 땀다. 배드민턴은 2년 연속 소년체전 석권하는 했다. 군산중 야구가 결승에서 충북 세광중과 접전 끝에 아쉬운 은메달을 땀다.

다만, 소년체전은 경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간 종합 순위를 정하지 않고 메달만 시상했다.

▲차별화된 즐길거리 등 다채로운 대회준비로 축 제분위기조성

제48회 전국소년체전은 별도의 폐회식 행사가 없어 관심이 떨어졌지만 25일~26일 주말인 관계로 선수 가족 등을 포함해 3만여명의 방문객이 방문했다.

이에 체전준비단은 방문객의 추억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트리아트와 상징물을 정비하고 트리아트 뒷면에는 전북방문의 소감과 4일간 열전의 결의 등을 직접 써서 전북방문의 추억을 새겼다. 또한 인쇄부스와 연계해 시·군 특산품을 전시·판매했다. 더불어 25일은 정춘미크 공연 등 14개 시·군이 특색 있는 다채로운 즐길거리 준비로 대회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특히 전북을 문화·예술·관광 여행체험 1번지 부각시키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다했다.

선수단 수송차량 측면과 주경기장 관람석에 여행 체험1번지와 잠버리 홍보 대형 플래카드를 게첨함으로써 단순체육대회를 넘어 전북도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선수단 및 방문객을 위한 관광코스선정과 전

북투어패스 지원은 지난 장애학생체육대회와 함께 큰 호응을 얻었다.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체전 및 불편사항 신속처리

체전준비단은 익산종합운동장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익산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의 신속한 업무협업으로 경기장 점검, 수송, 숙박, 의료, 자원봉사자 운영 등 체전 기간중 종합상황실에서 일일 보고를 확행하고 민원발생시 기관간의 업무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해 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전을 한건의 사건사고 없는 대회로 마무리했다.

또한 17개 시·도 체육회에 일일 불편사항을 접수해 신속하게 처리해 선수단 및 임원의 불편 제로화

이에 체전준비단은 장애학생체전과 소년체전에 참여한 선수단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항목은 6개 분야로 숙박, 음식점, 경기장, 자원봉사, 교통서비스, 통신 인프라 만족도와 1인당 평균지출금액에 대해 설문을 실시해 총 7개항목을 조사했으며, 장애학생체전은 7개항목에 대한 보통이상 만족도가 98%이상 나왔으며, 소년체전은 보통이상 만족도가 98.2%로 조사되었다. 체전기간 체류비용은 장애학생체전은 1인당 평균 지출은 20만원 이상 지출이 90.5%이고, 소년체전에는 1인당 평균 20만원 이상 지출이 82.5%로 조사되었다.

양대회의 통해 전북을 찾은 방문객이 7만정도로 예상되어 지역 소상공인과 관광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구감소와 경제여건 악화로 위축된 전북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었고, 특히 전북도민이 힘을 한데 모아 양대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전북의 기상을 재확인하고 활력 넘치고 생동감 있는 전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전북의 대도와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7개 메달 획득으로 올 성적 우수  
관광코스 선정 · 전북투어패스 지원  
선수단 · 임원 불편 제로화에 최선  
폭염 대비 그늘막 · 염분 등 비치도

에 최선을 다했고 그어는 대회보다도 편안하고 안전한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회기간중 토·일요일은 폭염에 대비하여 시·군 경기장별 현장 확인을 통해 그늘막과 아이스박스, 염분 등을 비치해 선수 및 방문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월요일 우천경기에는 우의를 준비해 관람객 편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5만여명의 선수단 및 방문객 방문으로 지역상인 및 관광지 호황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8일간 개최된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전과 제48회 전국소년체전을 통해 지역경제 생산유발액 311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58억과 고용유발효과 700여명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등은 모처럼 밀려오는 방문객들에 호황을 누렸으며, 이런 대회가 자주 개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하지만 대회로 복잡하기만 하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성공적인 전국소년(장애학생) 체전의 주인공 자원봉사자

제48회 전국소년체전과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을 위해 7개분야에 1200여명의 다양한 계층의 개인, 단체,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자원봉사단체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였다.

이번 대회는 폭염 등 기상이 고르지 않은 관계로 자원봉사 수요가 증가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컸다.

또한, 각 시도에서 참여하는 선수 및 임원, 관람객들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전개해 전북 알리기의 홍보대사로서 역할도 한 몫 했다.

김영민 체전준비단장은 “5월 가정의 달과 소년(장애학생)체전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으로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14개 시군의 협조와 관심, 참여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며 2020년에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절친타마의 마음가짐으로 완벽하게 준비하여 성공적 대회개최로 전북 대도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다짐이다.

/장은성 기자

